

사례명	두 번은 없다! 한 번의 신청으로 곧장 「인증」까지 (인증심사 절차 개선을 통한 불인증을 최소화)		
공모분야	적극행정	부서명	본원_활동인증부

◆ BP(Best Practice)

- ✓ 인증심사 절차 개선으로 '21년 불인증률 **28.6% 대폭 감소**
* (기존 1~8월) 32.1% → (개선 9~10월) 3.5%
- ✓ 인증기준 적합성 확인 시스템 개발로 검사비 **약 41,000천원 절감**
* ('20년) 57,000천원 → ('21년) 16,000천원
- ✓ 인증심사원 휴먼에러 최소화 노력으로 **오심률 0.7% 감소**
* '21년 오심률 (기존 1~8월) 4.7% → (개선 9~10월) 4.0%

□ 추진배경/현황/필요성

- 최근 3년간 인증신청 후 심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가벼운 미흡 사유 (단순 오타 등)로 인한 불인증 처리 건 33%, 재신청률 27% 발생
- 동일 내용 재신청에 따른 인증신청자의 불필요한 반복적 행정행위 발생
- ※ 인증신청 절차



□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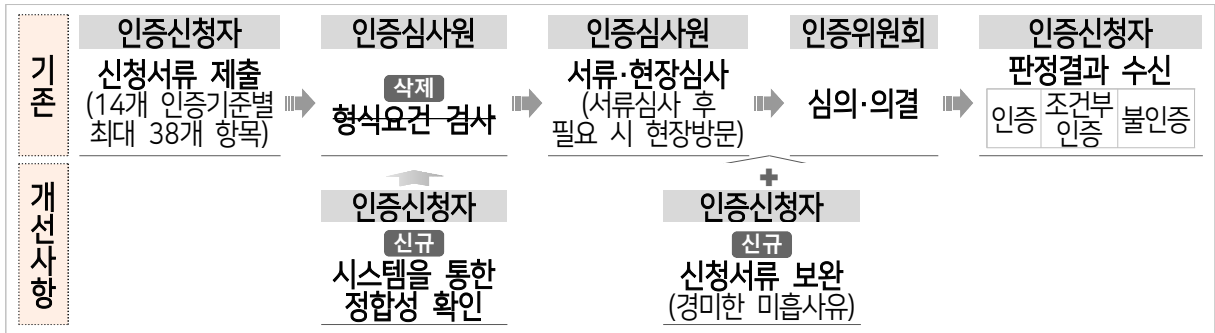
- (데이터 활용으로 휴먼에러 차단) 인증기준에 명백하게 미흡한 내용은 신청이 불가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불인증 요소 최소화

기존	개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증심사원을 활용한 형식요건 검사 수행 - 검사오류(휴먼에러) 약 5% 발생 - 검사결과 통보까지 평균 3일 소요 - 인증심사원에 검사비용 건당 9만원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증기준 적합성 확인 시스템 기능 개발 - 시스템 활용으로 서류 자동화 검사 실시 - 시스템 상 즉시 결과 확인 - 형식요건 검사 폐지로 검사비용 없음

- (대국민 적극행정 강화) 심사절차 개선으로 인증심사 후 인증 신청자에게 보완기회를 부여하여 경미한 미흡사항 등을 즉각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시

- 심사절차 개선을 통한 '21년 불인증률 32.1% → 3.5%로 28.6% 감소

※ 인증신청 절차 개선



- (인증신청 성공사례집 배포) 불인증 보완요청 사항을 인증 기준별로 분석하여, 인증신청자의 인증률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



□ 기대 효과

- 반복적 인증신청 감소로 신청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을 통한 인증신청자의 업무효율성 향상
-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인증제도 신뢰성 향상
- 불인증 미흡사유를 데이터로 축적하여 분석을 접목하고 신청 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인증률 확대에 기여

□ 추진 시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

기존	개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합성 기능 및 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발 사업의 일정 조율 필요 · 보완기회 부여를 위한 미흡사유 검토 및 안내 등 행정처리 절차 추가로 담당자 업무 부담 증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지보수 기능을 통한 시스템 내 개선사항 최우선 발현 및 대면활동 → 비대면활동 순으로 점진적 확대 적용 · 검토기간 확대 등 인증신청 마감일 및 인증위원회 일정 전면 개선 검토

□ 성과 확대방안

- 인증심사원을 대신하는 AI 기능 탑재 시스템 개발 및 적용
 - 축적된 데이터 및 다양한 인증신청 사례 등을 통해 학습된 AI가 논리적인 방식을 통해 사고하고 판단하여 인증심사 진행